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지난 9월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역사적, 정 치적, 외교적, 국제적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두 정상의 대화와 만남이 이뤄진 곳곳에 또 다른 가치와 해 석의 여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기존의 관습과 행 태를 훌쩍 뛰어넘는 태도와 행보를 보였 다. 과거 정상회담에서도 나름 좋은 성 과를 냈지만 궁극적으로 형식을 탈피하 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 로 절실하게 원하는 그 무언가가 형식을 뛰어넘게 만들었다. 형식이 중요하게 작 동하는 영역에서는 더 묵직하게 다가오 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형식을 어 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형 식을 바꾸자고 하는 실무적 접근에서는

우리 시대의 리더

불가능하다.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전략 과 비전에서 비롯된다. 과연 우리는 어 떤 공동체를 꿈꾸고, 어떤 미래를 상상

두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서로를 대 했다. 보통 우리의 태도와 표정은 마음 에서 비롯된다. 결국 형식까지도 변화시 킨다. 그것은 사심(私心)의 문제이다. 사심 없는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과 편견이나 왜곡을 배제하는 것에서 출 발한다. 미국, 북한, 남한이 그동안 보여 준 태도와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 심 없는 사람의 태도와 표정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 계를 만든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창 조하고, 나아가 양쪽의 공동체 성원들에 게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까 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다. 이것은 리더의 문제이다. 리더는 누 구인가?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결국 훌륭한 리더란 자신의 조직을 잘 이 끌어 가는 사람일 것이다. 혹자는 문재 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기

질을 언급하기도 한다. 개인적 혹은 사 교적 만남이라면 기질의 문제로 쉽게 치 환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순한 기질을 넘어 정확한 현실 판단과 목표에 따른 구 체적인 전략과 실행이 두루 담겨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잘못된 리더를 선택한 결과, 아직까지도 그 대 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 시대의 리더는 단순히 인성이나 도덕성의 차원을 넘어 똑똑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 어떤 시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 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과제가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리더 개인이 모든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적재적소에 어울 리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 개인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조직 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구성원 이 리더의 결정만 기다리게 되면 조직은 경직되고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실종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는 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 공급 과잉의 문제 도 있지만,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제대 로 된 정보를 분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이기도 하다. 리더는 가짜 와 진짜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가짜가 넘쳐 나는 세상에서 진짜를 잘 구별해 내서 공동체의 지속 가 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무엇일까 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중

일본의 소설가 다나카 요시키의 대하 장편소설 '은하영웅전설'에서 양웬리 장 군은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해 로운 이는 보급 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멍청이지." 전쟁을 제 대로 수행하려면 전략적 판단에 따른 보 급 현황 등 구체적인 디테일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실 분석과 자원 배분 등 통합적인 설계와 비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누구나 훌륭한 리더를 원한 다. 경북 어느 군에서 개그맨 전유성 씨 를 배제하고 코미디 축제를 만들어 가겠 다고 결정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현 실은 '멍청한 리더'가 넘쳐난다. 시민들 이 리더에 대한 고민을 절실하게 해야 할

요한 역할이다.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에서 한두 차례 개최할 경우 광주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 이 높다. 평양 예술단 답방 공연 및 북한 선수단의 수영선수권대회 참가가 이뤄진 다면 광주는 대북 교류에서 가장 큰 성과 를 내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타고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대북 교류 사업이 본

격화될 전망이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광주시다. 시는 내년에 열리

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북한 선수단 참가가 필수적이

라고 보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이 조명균 통일부장관

을 만나 북한선수단 참가 제안을 한 데

이어 4일 방북한 이병훈 부시장도 북측

에 선수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북한

선수단 파견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300여 명 규모의 북한 응원단도 따라올

것으로 보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흥

여기에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평양예술

단의 답방 공연을 광주에 유치하는 데도

행이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社說

전남도와 전남 지역 시・군들의 대북 교 류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남도는 민선 7 기 들어 남북 교류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23개 사업을 발굴했다. '땅끝 협력'이란 이름으로 함경북도 산모와 영유아에게 미역과 이유식을 보낼 계획이고, 평양에 는 2010년 중단된 발효콩빵 제2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목포 시 역시 국도 1호선의 시발점이라는 공 통점을 활용해 신의주와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순천시도 조례를 제정해 교류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북한과 공동 으로 두루미 서식지 복원 사업 등을 추진 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북 교류 사업 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 협력 구축이 란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 최전선에 광주·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나선다는 것 도 좋은 일이다. 다만 즉흥적으로 추진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 하다.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종전 선언이 성과를 낸다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로 이어져 곧바로 대북 교류 물 꼬가 트일 것이다. 눈앞에 다가온 대북 교류에서 앞서가려면 한 번 더 점검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남북 평화·교류의 꽃 광주·전남이 피우자

원전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인명 피 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불가피하

그렇다면 광주·전남 지역은 비상 상황 에 대비한 시스템을 얼마나 갖추고 있을 까? 이런 걱정이 새삼스럽게 드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상황 이 발생할 경우 영광 한빛원전에선 907 조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 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 앞서 이훈 의원이 공 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 사고 발생 시 피해액은 한빛원전 907조 원, 고리원전 2492조 원, 월성원전 1419조 원, 울진원 전 864조 원 등이었다. 이 액수는 일본경 제연구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액 을 분석한 방식에 따라 원전 지역 인구 밀집도•지역 총소득•임금 등을 보정한 값

이다. 한빛원전의 경우 1차 피해 범위인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살고 있는 인구는 후쿠시마(14만 명)와 비슷한 13만 9078 명이지만 광주가 직선거리로 40km 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울산시 는 2019년~2028년 원자력방재타운을 조성해 방재 지휘와 훈련, 방재 연구 기 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 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에서는 과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인데, 평상시 세 심한 점검으로 지역 주민의 불안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선진화된 방사능 방재 시스템 및 훈련 시설 구축, 유사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시설 지정도 서둘러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기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고

지난 여름 무더위를 위로하는 귀뚜라 미의 반가운 노랫소리가 가을 문안합니 다. 길고 긴 더위에 지쳐 있는 몸과 마음 흔들어 깨워 높아지는 맑은 가을 하늘을 닮은 시민 여러분께 안부 전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바로 지난 16년간 해결하지 못한 광주 도시철도 2 호선입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회 워들이 지난 한겨울과 여름에 천막을 치 다. 저소득층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 교 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며 지금도 하 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이 그것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가 2조 579억 원 에서 3조 원으로, 공사 기간은 10년을 예

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 지 의 60%를 부담하고 연간 1000억 원 분 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겠지 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불을 보 듯 뻔합니다.

물론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면 어느 정도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러나 무엇보다 2호선은 돈 먹는 하마라 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1호선의 작년 운영 적자는 453억 원입니다. 거기에 2 호선까지 개통하면 연간 약 800억 원으 로 늘어납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차체중 광주 북구 의 재정 자주도가 최하위이며 남구는 139위, 동구도하위 20위권입니다. 광주 시 재정 자립도(31.47%)가 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광주 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한 쪽에 치우치 면 다른 부분은 감소할 것은 상식입니 육, 복지, 문화 등이 그것입니다.

빚을 내서 지하철 2호선을 만들게 되 면 광주는 빛고을이 아닌 '빚고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시철도 공사는 충 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사업비

산 투자와 교육, 복지, 일자리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광주·전남 인구의 감 소의 진실입니다. 매년 수천 명씩 인구 는 줄고 있습니다. 현재 146만 명에서 2 호선 공사기간 중 130만 명 대에 진입할 것입니다. 떠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은 광 주의 미래 청년들입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도 자연 감소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신규 택지 지구 개발 등 도시화로 광주가 2.5배 확장되므로 버스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 여러분은 궁금하시지요. 그 래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를 통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론화는 능동 적 시민 참여와 학습, 숙의입니다. 시민 참여형 의사 결정 방법입니다. 시민 참 여형 숙의 조사는 시민들이 충분한 학습 과 토론, 성찰을 통해 자신의 판단, 선 호, 관점이 성숙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 출하는 것입니다. 열린 사회를 위한 소

통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숙의 조 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숙의형 공론화와 건설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 됩니다. 하지만 공론화의 독립성과 공정성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 섭 시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지하철 2호선 추진 방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론화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위원회 운 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찬 바람이 불기 전이라는 시한에 맞추 어서 조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 입니다. 11월 10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 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의 민주 주의와 민관 협치 모델이 되어야 광주 정 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한 여론 이 되어야 합니다. 느리더라도 바로 된 공론화가 답입니다. 침묵하거나 무관심 으로 일관하면 공사는 진행됩니다. 침묵 은 또 다른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시민 여 러분의 건강을 기도하면서 미래의 광 주를 위해 깨어 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기 卫

WomenLeadership 대표 남부대 겸임교수

최근에 광주의 한 건설사가 대구시 수 성구의 한 중심 중동에 건립하는 모델하 우스 오픈 행사에 다녀왔다. 멀리 대구 까지 간 이유는 광주의 브랜드가 대구에 진출한 뜻깊은 자리라는 점에서 지인과 동행했다.

대구 수성구 심장부에 입성해 가계 경 제의 주도권을 쥔 주부들의 삶 속에 파고 든다는데,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실제 내가 방문한 주 말과 휴일 사흘동안 3만 명에 가까운 대 구 시민들이 모델하우스를 다녀갔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2021년 12월 입주 예 정으로 약 600가구 규모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 자금 규모는 약 4000억 원이라는 데, 생산 제조 기반이

건설업계의 '달빛동맹'

취약한 광주 지역 경제에 톡톡히 효자 역 할을 할 것이다. 또한 광주의 아파트 문 화가 대구 시민의 삶 속에 파고들어 휴식 을 제공하는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한다 면 영호남 간 이질적 정서와 문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와 대구는 2009년 달구벌(대구) 과 빛고을(광주)의 머리글자를 따 '달빛 동맹'을 맺었다. 영호남 화합을 통한 국 가 균형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뜻이 담긴 새로운 협력 모델로써, 민간 중심 교류 뿐 아니라 대형 SOC 사업도 이의 연장 선상에 있다.

지난달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마침내 시동을 걸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문 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광주~대구 간 191.6km를 고속철도화하는 국책 사 업이다. 때맞춰 광주의 건설 브랜드도 대 구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게 된 것이다. 필자는 가칭 민간 보금자리 '달빛동맹' 으로 명명한다.

호반건설, 중흥건설, 보광종합건설, 남양건설, 서진종합건설, 새천년종합건 설, 삼일건설, 영무건설, 대성건설, 진아 건설 등 광주의 메이저 건설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 지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서 울, 세종, 대구 등 타 지역 진출을 통해 매출액을 증대시킨 것은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2018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 하면, 광주는 GRDP (지역 내 총생산)가 전국 평균의 70%에 그치고 있는데 반하 여 지난해 광주 지역 건설 업체의 국내 공사액은 4조 300억 원으로 전년 3조 9050억 원에 비해 2.3% 증가했다. 대구 (2.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실 적 증가율이 높다. 이는 결국 민선 7기 광주시의 최우선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 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고, 빈사의 광 주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광주 시는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달빛내륙철도 사업에 광주 건설 브랜드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 록 지역의 정치권과 기업이 함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전략적 대응 및 선제적 마 케팅을 하는 것이다.

광주의 메이저 건설사가 전국적으로 매출세를 신장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 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의 건설계 는 IMF와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자신감과 강인한 DNA가 있다. 필자가 광주은행에 근무

할 때이다. 1998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건설사와 협 력사가 부도 위험에 처했을 때 뼈를 깎는 고통의 기업 구조 조정과 지역민들의 눈 물,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원화 대출 연체율은 7월 말 0.56%로 6월 말 대비 0.05% 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에 비해서는 0.08% 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향후 시장 금리 상승, 경기 불확실 성과 국내 경제 악화로 연체 증가율도 예 상된다.

따라서 무리한 공격 경영을 지향하고 도산을 예방할 수 있는 상시적 리스크 관 리, 지속적 혁신적 품질 경영을 통한 완 벽한 시공,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아파 트 건설에 최선을 다한다면 소비자가 선 호하는 명품 아파트로 명성은 더욱 높아 질 것이요, 매출액은 더욱 날개를 달 것

나아가 광주 브랜드의 아파트가 대한 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입성하고 다른 지 역민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진정 '예향 광 주'로 인정받고 지역간 편견과 정쟁은 과 거 유산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어 본다.

無等鼓 🥠

노벨 평화상

노벨상의 계절이다. 지난 1일 생리의 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 상자가 이미 발표됐다. 오늘은 노벨상의 꽃인 평화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특히 문 학상이 성 추문으로 얼룩진 가운데 평화 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역대 평화상 수상자로는 앙리 뒤낭, 알 베르트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테레사 수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단체로는 국제 적십자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엔평화 유지군 등이 있다.

한국인으로는유일하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한국과 동아시 아에서 민주주의와 인

권을 위한 노력 그리고 북한과의 화해 협 력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우리 귀 엔 '김다종'으로 들렸던 18년 전 군나르 베르게 노벨위원회 위원장의 수상자 발 표에 환호와 감격으로 온몸에 전율이 일 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올해 수상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가 2018년 지구촌 최대의 이슈라는 반증 이다. 지난해 김정은과 트럼프는 거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핵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문 대통령의 중재로 지금은 트럼 프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할 정 도로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인권과 스캔들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 는 두 사람이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나 홀로' 수상은 자칫 한반도 평화에 독 이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노벨상은 트럼 프 대통령이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평화 만 가져오면 된다"고 문 대통령이 말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결국 '3자 공동

> 수상'이 최고의 시나리 오일 텐데, 과연 노벨상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 일 수 있을지.

평화상 후보 신청이 올 2월에 마감되 었기 때문에 3자 모두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차라 리 1년 뒤 한반도 평화 체제를 완성하고 공동으로 수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는 생각도 든다. 오늘 노벨 평화상 수상 자 발표가 평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수상 때처럼 방해 공작과 취소 공작 같은 상식 밖의 치졸한

행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유제관 편집1부장 부국장 jkyou@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집 부 220-0649 (FA X 222-0195) 무 국 220-0551 과 리 국 227-9600 업 치 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F AX 222-0195⟩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육 부 220-0697 ※구독료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